

익살과 해학의 코드로 푼 불교미술



불교미술의 해학
권중서 지음
불광 펍냄
1만2600원

“절간 같다”는 말이 있다. 말이 끊겨 고요하고 적막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찰은 모듬지기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곳이니 맞춤형 비유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 해학과 익살을 감춰놓고 은근히 즐겼던 우리 조상들이 이런 ‘가목한’ 사찰이라고 가만 놔뒀을 리 없다.

법당 천장에는 용과 족제비가 승바꼭질을 하고 있고, 불화 속에는 부처님이 살법을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을 친다. 부처님이 앉아계신 대좌 밑에는 비굴한 용이 잡자리에게 쫓겨 다니고, 사천왕의 다리 밑에 깔린 생령좌는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과격적인 모습도 많다. 아이에게 젓을 먹이는 불상이 있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어느 사찰 벽화에는 술고래 이태백이 물고기를 타고 나타나 놀라게 한다.

어쩌면 사찰과 관련 없는 것 같은 이런 조각이나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여유와 해학을 주기 위한 화승과 조각상의 재치이기도 하며 또 일반 서민이 법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여유와 해학은 인도, 중국, 일본의 사찰 그 어디에

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사찰만의 특징이 기도 하다.

잘 살펴보면 대웅전에 사는 동물은 손으로 일일이 다 세기가 어려울 정도다. 개구리, 토끼, 용, 족제비, 잡자리, 호랑이 등등. 이런 모습은 범부의 눈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조상들은 그림이나 조각 곳곳에 이런 모습을 새겨 여유와 해학을 더해줬다.

10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신록사 극락보전의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는 익살의 압권이다. 부처님이 서방극락세계의 장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엄숙한 순간, 부처님의 제자가 자신이 그린 대나무 그림을 펼쳐 보이며 주위에 자랑을 한다. 주변의 다른 제자들은 서로 보여 달라며 아우성이다. 심지어 한 제자는 잘 안 보인다며 어깨너머로 손을 뻗는다. 물론 부처님께 혼날까봐 결눈치를 하며 눈치를 보는 제자도 있다. 범문이 설해지는 팽팽한 자리에 잠시 긴장을 풀어주는 여유의 ‘장차’다.

1870년 조선 고종 때 만들어진 남양주 흥국사 만월보전 팔상성도 중 수하람마상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병(寶瓶)을 마왕의 군대 앞에 내어놓으며 “너희가 이 보병을 쓰러뜨리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자 마왕의 군대가 달라붙었다. 보병에 묶은 병을 밟도록 무고 당기는 놈, 무는 놈, 다리를 거는 놈, 북을 치며 격려하는 놈들이 들러붙었다. 보병은 끄덕도 하지 않자 마왕의 군대는 목적을 잊어버린 듯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난리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린 그림 한편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쉽게 한다.

하지만 해학은 단순한 웃음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세태를 꼬집고 비웃을 수 있어야 진정한 해학이다. 해인사 대적광전 외벽에 있는 팔상성도 중 쌍림열반상을 보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사리비가 내린다.

오색영광함에 눈이 멀 지경이다. 그런데 이 장엄의 순간에 이 무슨 일인가? 슬픔대신 사람들은 사리를 받기 위해 치마를 높이 치켜 든다. 범부뿐만 아니다. 국왕도, 대신도 이 대열에 동참한다. 심지어 부처님을 지키던 사천왕도 부처님의 사리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외호자

사찰 곳곳에 해학과 익살 숨겨 있어 사찰의 그림·문양 지혜와 자비 상징 현장 방문하고 짝은 260장 도판사용

팔부중 한 명은 그릇 속에 얼른 사리를 하나 넣는다. 욕심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처럼 이 책에는 사찰의 전각, 조각 그리고 그림 등 사찰의 구석구석, 곳곳에 남겨져 있는 불교미술의 해학과 익살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다.

사찰에 남겨진 그림이나 문양 하나하나를 모두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장치다. 하지만 때때로 세속의 원망을 배치해 민초들과 하나가 되기도 했다. 용주사 효행박물관에는 조선

시대 만들어진 젓을 먹이는 부처님이 있다. 영락없는 조선시대 어머니의 모습이다. 사도 세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효행분할 용주사다운 독특한 모습이다.

선운사 도솔암 내원공 천장에는 한쌍의 물고기가 마치 교미를 하는 것처럼 엉켜 있다. 알고 보면 좀 민망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산을 염원했던 여인들의 심정이 그런 조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여유롭게 웃고 넘어갈 만하다. 이밖에도 국가의 안녕이나 왕의 안위를 기원하는 조각 그리고 땅자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조각이나 문양도 보인다.

사실 이런 모습은 평범한 눈으로 관찰해 내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교육용으로 만든 사찰 안내서와는 많이 다르다. 대신 사찰의 구석구석을 뜯어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특어나 이 책의 미덕은 사찰에 담긴 이런 염원, 해학, 익살을 경건이나 불교설화 등이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하나하나 전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모두 260장의 도판이 사용되었다. 모두 저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렌즈에 담은 것이다. 저자는 이번 사찰 답사를 통해 사찰의 세밀한 모습을 관찰했음은 물론 그 모습이 모두 경건, 설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데 노력했다.

단순히 유형의 문화를 학술적인 잣대에 틀어대다 근엄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다분히 불교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기도와 수행체험을 신경학적으로 조사 연구

신의 흔적을 찾아서

바버라 해거티 지음 | 홍지수 옮김
김영사 펍냄 | 1만4천원



이 책은 물질과학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영성의 과학’이라는 과단의 연구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영적 체험의 신경생리학적 연구라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획기적인 발견에 전 세계를 주목시킨 화제작이 되었다. 출간과 동시에 언론계는 물론 과학계와 종교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모았으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뇌과학·신경신학·심신의학·유전학·철학·심리학 등 세계 석학들의 연구와 실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생생한 증언과 경험담, 집요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 세계 너머에 대한 진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믿음과 영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학이 탐구하고 있는 내용을 파헤친다. 저자는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을 만나 그들이 시행한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영적 체험에 관해 어떤 내용들이 밝혀졌는지 설명한다. 불교 승려들과 프란체스코 회 수녀들의 뇌 기능 분석에서 종교 기도를 통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입사체험이 내세에 대해 시사하는 점에 이르기까지, 해거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 우리가 초월적 존재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세세히 추적한다. 인간이 어떻게, 왜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과학이 어떤 발견을 하고 있는지도 심도 깊게 다룬다. 과학의 이면을 꿰뚫은 독보적 연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과학과 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믿음과 생각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 기도를 듣고 병을 치유하는 신이 존재하는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해 연구 결과를 보면, 기도가 효험이 있다는 증거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HIV 바이러스의 진행을 막는 생각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한때 미

신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과학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의 생각이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바로 믿음의 생물학이다.

과학자들은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비신체적인 것들이, 유전자나 생활 방식이나 복용하는 약처럼 우리 신체에 세포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정, 특히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심장발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면역체계가 인플루엔자를 물리치려고 할 때 그 기능을 저하시킨다.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암 진행이나 유방암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서는 기도가 에이즈 말기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국에서는 시험관 수정으로 임신하려는 여성들의 경우 중보기도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신할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민음과 생각이 병도 치유 가능 오랜 기도는 신 접촉, 근거 희박

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도가 몸을 치유한다는 연구 결과만 큼이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어떤 경우에서는 악화되는 결과도 나왔다.

펜실베이니아대 방사선과 교수이자 정신의학과 교수인 앤드루 뉴버그는 티베트 불교 승려들, 프란체스코 회 수녀들, 시크교도, 오순절과 기독교 등 은갖 종교의 영성 전문가들을 연구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신과 교감을 나누거나 육신 밖에 있는 다른 차원에 접속하게 될까? 뉴버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그저야 믿음의 체계가 어떤가에 달려 있겠죠. 종교를 가진 사람이 뇌 스캔을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 신이 나와 소통하는 부위가 여기군.’ 무신론자는 똑같은 뇌 스캔 자료를 보면서 그럴 겁니다. ‘이것 봐, 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니까.’ 나한테 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뇌를 스캔한다고 해도, 스캔 결과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신을 봤는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황금시대를 이끈 황벽선사 어록집

황벽어록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펍냄 | 1만3천원



황벽회운 선사는 당나라 때의 걸출한 선승으로서 육조혜능-남악화양-마조도일-백장회해로 이어지는 법을 전해 받아 임제종의 시조인 임제의현에게 전해 주었다. 중국의 현 북건설 북주 사람으로 북주의 황벽산에서 출가하였고, 그 후 백장회해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다. 대안사와 용흥사, 개원사에서 주석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단제선사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경덕전통목, 오동회원, 조당집 등에 선사의 행적이 실려 있다.

묵은 길고 체계적인 대화와 상세한 법어를 싣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벽선사의 이 어록은 육조혜능에게서 비롯되고 마조도일과 백장회해를 통해 정립된 조사선의 가르침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 후대에 조사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뒷날 임제종의 황룡혜남이 중국 조사선의 황금시대를 누렸던 마조, 백장, 황벽, 임제 등 4명 선사의 어록을 모아 사가어록을 간행하여 임제종의 종지를 전하는 전거로 삼았는데, 황벽선사의 어록인 전심법요와 완릉목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완릉목에는 성철스님의 말씀으로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구절이 있고, 조계종 종지인 ‘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표현도 전심법요에 처음 등장한다. 오직 한 개 마음뿐이다. 황벽선사와 오랜 세월 문답을 주고받은 배후는 전심법요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일심(一心)만을 오로지 전했을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으셨다.”고 했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이 전심법요는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지금 이대로가 공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 없다.” 또 말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부처일 때에도 이 마음은 불어지지 않는다.”

나아가 육도만행(六度萬行)과 강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공덕을 본래 다 갖추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더할 필요가 없으며, 인연을 만

세계적 대화와 상세한 법어 실어

후대 조사선 발전에 크게 기여

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쉰다. 만약 이것이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모두 망상(妄想)이어서 도와는 어긋난다.”

마조선사가 말한 “이 마음이 곧 부처다(즉심시불)”를 이어받은 이 법문은 마음의 실상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의 마음 뿐이고, 이 마음이 부처이고 중생이며, 이 마음은 완전무결하여 수행을 통해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마

음이 부처임을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으로 다시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욱 잃는다고 말한다. “다만 중생은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하니, 구할수록 더욱 잃는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하니,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구하면 더욱 잃을 뿐 아니라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으니, 그러한 구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이 의문에 대한 선사의 대답은 더할 나위 없이 명쾌하다.

“이들 중생은 생각을 쉬고 헤아림을 잊는다면 부처는 저절로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듯 선사는 전심법요의 첫머리에 이미 선의 정수를 다 밝혀주었다. 그러나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가 무리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을 때까지 의문이 그치지 않지 마라. 이에 선사는 제자들과의 문답으로, 상당시중으로, 몸짓 등으로 계속해서 법을 가리키며 마음의 실상을 자세히 밝혀준다. <황벽어록>은 불자라면 누구나 공경해할 것까지의 문답에 대한 명쾌한 답변들이 수록돼 있어 선을 공부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수륙영가천도

조상영가 태아영가 천도 부산 ↔ 일본오사카 일본오사카 ↔ 부산

우환, 우울증, 신경쇠약, 불면증, 비만, 알콜중독, 가족갈등, 변비, 악몽, 가위눌림, 중풍, 치매, 암예방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수륙천도제 선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관광이 아니고 천도가 목적인, 좋은 일이 일어남.

특 강

대불정능업신주 /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천수경 특강을 들어보시면 불교수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지도

대학입시지도, 사업성공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풍수지리 수맥탐지 정 태 철

010-2797-1633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불교 TV 꿈바위 활동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점심식사,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제2기 지도사 과정 모집 (1급, 2급)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술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인성,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10~11월 60시간 ▶1급 : 11~12월 60시간

워크숍, 교재, DVD, 교육 참관,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빙의(신병) 퇴마

9월 수강생 모집

퇴마 및 최면요법 과정 (전생과 미래를 본다)

1. 개강 : 2013. 9. 7 (토요일) 오전 11시 개강 2013. 9. 2 (월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200만원 (8회, 과정별 교재제공)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당 후 수강결정)

퇴마특별과정 : 배웠으나 퇴마 못하는 분

1. 개강 : 2013. 9. 1 (일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100만원 (4회, 문답식 교육, 문제해결)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당 후 수강결정)

개인지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 퇴마와 최면요법
2. 시간, 장소 (서울과 의정부) 상담 후 결정
3. 지방출장 지도 2명이상

상담 : 예약상담

- * 사주상담 * 심리상담, 우울증, 공포증 * 빙의퇴마
- * 무속인 :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범당정리
- * 빙의(신병) : 출장상담 및 출장 퇴마

- 신간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 주문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 저자 : 제행 스님 직접상담 및 지도
- 전화 : 011-772-4606. 02)588-4606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중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중단 여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